

‘e혈전증’ 과 ‘콘트라섹슈얼’

최근 한 방송사의 ‘세대공감 올드 & 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모르는 신세대 말, 신세대가 모르는 어른들의 말을 알아봄으로써 세대간의 언어습관을 엿보고, 올바른 우리말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세대가 모르는 어른들의 말은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 한번쯤 들어보았거나 그랬을지한테, 어른들이 모르는 신세대 말에선 한번쯤 껌치하게 됩니다. 그 ‘껌치’의 근원은 ‘아니, 저런 말도 있었나’ 하는 놀라움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런 차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조어가 많이 탄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e-혈전증’이나, ‘콘트라 섹슈얼’도 들어본 듯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단어들입니다. 말은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즉 이러한 신조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바로미터일 것입니다. (편집자주)

글_라이터스

e혈전증

당신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혹 빼격거리는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일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아래 내용에 귀기울여 보세요. 최근 의자에 오래도록 앉아 일하는 이들이 잘 걸린다는, 지극히도 생소한 e혈전증이라는 증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Contra— Sexu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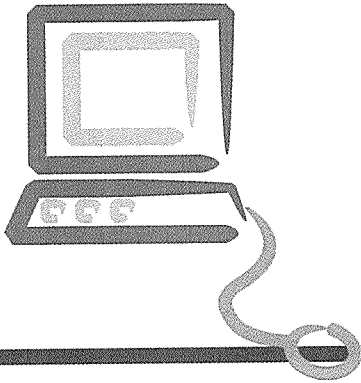
때는 바야흐로 2003년 1월, 영국 BBC방송이 <유럽 호흡기저널>에 실린 뉴질랜드 의학연구소 리처드 비슬리 박사의 연구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e혈전증' '심정맥 혈전증' 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e혈전증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구요? 먼 거리를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 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e혈전증의 'e'가 economy의 e를 의미합니다. 고급좌석이 아닌 일반좌석에 오래도록 앉아 있으면 피가 잘 통하지 않아 결국 피가 엉켜 덩어리, 즉 혈전이 발생하곤 합니다. 주로 대퇴정맥이라고 다리에 있는 큰 정맥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 혈전이 심장, 허파, 혈관 등을 돌아다니다 허파순환을 방해해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슬리 박사는 컴퓨터에 오래도록 앉아 일해도 e혈전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매일 18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던 서른두살 된 남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거의 움직임 없이 오래도록 컴퓨터를 하고 난 뒤 이 남자는 장판지가 부어오르면서 심한 통증을 느꼈고 10여 일 뒤 증상이 없어지려는가 싶더니 숨쉬는 일이 곤란해졌고 결국은 의식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비슬리 박사는 이외에 같은 해 7월 <뉴질랜드 메디컬 저널> 최신호에 비슷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영화관이 문제입니다. 좁은 영화관 의자에 앉아 몇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영화를 본 여성이 e혈전증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십대 초반의 이 여성은 <반지의 제왕—두 개의 탑>이라는 영화를 3시간 여 동안이나 꼼짝 않고 봤다고 알려졌는데, 그 후 30분쯤이 지나자 오른쪽 다리에 통증을 느꼈고 곧 부어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통증 또한 굉장했습니다. 고통을 이기기 힘들었던 여성은 곧 병원을 찾았고 전문의로부터 e혈전증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죽음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e혈전증. 좋은 해결책은 없을까요? 자살한 비슬리 박사는 다리를 꼬고 앉지 말고 영화나 컴퓨터를 하는 중간 다리를 많이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하면 e혈전증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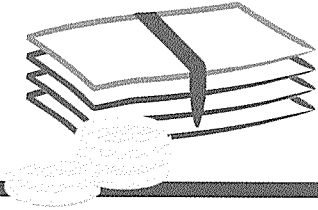
콘트라 섹슈얼

결혼하고 1년 안에 임신하여 2명의 자녀를 30세 이전에 낳자는 '1·2·3운동'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세상 참 많이 변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혹시 '콘트라 섹슈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결혼 적령기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 뒷바라지하고, 결혼 2~3년 차에 이르면 자연스레 아이들을 임신 출산하여 양육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거부하는 20~30대 신여성들을 뜻하는 신조어가 바로 '콘트라 섹슈얼'입니다.

이러한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여성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 여성들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이 신조어 자체가 영국의 미래학

결혼 적령기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 뒷바라지하고, 결혼 2~3년 차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임신 출산하여 양육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거부하는 20~30대 신여성들을 뜻하는 신조어가 바로 '콘트라섹슈얼'입니다.



연구소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니 말입니다. '반대'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콘트라'와 '성'을 의미하는 '섹슈얼'이 결합된 단어라고 합니다.

미국 여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가 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유력한 일간지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서는 △ 결혼보다 사회적인 성공과 부(副)를 우선시하며 △ 30대 중반까지는 결혼과 아이에 대해 일절 관심이 없고 △ 조건 없는 섹스를 즐기는 여성들로 콘트라 섹슈얼의 특징을 파악해 언급했을 정도로 이슈화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이나 출산보다 본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 본인의 성공과 부를 거머쥐려 하고 있는 여성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인터넷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를 찾은 20~30대 여성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봐도 이러한 경향을 잘 알 수 있는데, 본인이 '콘트라 섹슈얼이다'라고 대답한 이들이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본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 여행 등 삶의 여유 △ 고소득 경제력 △ 아름다운 외모 △ 행복한 결혼생활 순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 등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분명 우리나라 여성들도 콘트라섹슈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당신도 콘트라섹슈얼인가요? †